

탄원서

2020년 여름 올림픽의 개최지로 도쿄를 선택하지마세요

웹에 서명하는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청원 :

<http://www.gopetition.com/petitions/do-not-select-tokyo-to-host-the-2020-summer-olympics.html>

창작자: Don Tow

배경: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 불리는 20 만명 이상의 여성과 소녀들이 성적노예로 강요받았다. 난징시에서만, 1937년 12월 13일에 시작해서 대략 6주동안, 수많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약 30만명의 중국인이 도륙당했으며, 약 2만여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강간당했다. 제 2 차 세계 대전동안, 수천개의 생화학 대량 살상무기가 12개이상의 중국 지방에 배치되었고, 무수히 많은 중국인들이 살상당했다. 그 중 살아남은 사람이라도 평생을 불구자로 살아야했다.

그러나, 아베신조, 일본의 현 총리와 그 내각은 2006과 2007년 거듭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 성적노예로 여성을 강제로 동원한 적이 없었으며, 일본 내에서 그에 관한 그 어떠한 증거도 없다.”라고 말했다. 신타로 이치하라, 도쿄도지사는 1990년 인터뷰에서 난징 대학살은 “중국인이 지어낸 날조된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타카시 가와무라, 나고야 현 시장은 2012년에 “난징 대학살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단 전쟁 중 일어날 수 있는 극히 평범한 결과들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이 같은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는 수많은 증거들이 수많은 실제 증인들에 의해 잘 서류화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서양의 저널리스트들과 사업가들, 외교관들, 자선단체들, 교육자들 그리고 다른 국제 감시기구들이 이를 뒤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선생이면서 저널리스트인 일본인 타마키 마슈오카는 난징 대학살에 대해 증언한 250명 이상의 퇴역 일본군과의 인터뷰 를 가지고 있다. 이 인터뷰의 상당수는 비디오로 남아 있다.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난지 67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여전히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 그들 일본 제국군이 아시아에 가한 이 엄청난 반인륜적인 잔혹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 내각의 의원들, 소위 일본의 지도자들이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정기적으로 참배를 하고 있다. 이 신사에는 14명의 A 등급 세계 전쟁 범죄인들이 소중히 모셔져 있다. 이것은 마치 독일수상이 히틀러에게 경의와 존경을 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1980년 초부터 학교 교과서를 새로 집필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젊은 세대가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이 자행한 수많은 잔혹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역사 의식을 심어주고자 함이다.

이미 세계의 많은 의회들이 “위안부 여성”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에서는 이 결의안이 2007년 통과 되었고, 캐나다, 네덜란드, 그리고 유럽 의회들도 이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말”만으로는 일본의 태도를 변화시키기에 충분치 않다.

만약 인류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지 않는다면, 잘못된 역사는 되풀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진주만 폭격, 또 다른 난징 대학살, 또 다른 바탄 죽음의 행렬, 또 다른 성적 노예, 또 다른 세균전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전 인류가 말만이 아닌 더 확실하고 진지한 행동을 보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제 올림픽 기구에 2020년 여름 올림픽의 최종 후보지인 이스탄불과 마드리드, 도쿄중 개최지로 도쿄를 선택하지 말라고 탄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탄원서에 서명해 주십사 거듭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국제 올림픽 기구와 각 나라의 올림픽 위원회에 이 탄원서를 보낼 것입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그들이 행한 수많은 잔혹행위에 대해 인정 하지도 사과 하지도 않는다면, 2020년 여름 올림픽의 개최지로 도쿄를 선택하지 말아 달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탄원할 것입니다.

탄원서: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아시아에 수많은 반인륜적인 잔혹행위를 저지른지 67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 그 어떠한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베신조, 일본의 현 총리와 그 내각은 2006과 2007년 거듭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성적노예로 여성을 강제로 동원한 적이 없었으며, 일본 내에서 그에 관한 그 어떠한 증거도 없다.”라고 말했다. 신타로 이치하라, 도쿄도지사는 1990년 인터뷰에서 난징 대학살은 “중국인이 지어낸 날조된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타카시 가와무라, 나고야 현 시장은 2012년에 “난징 대학살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단 전쟁 중 일어날 수 있는 극히 평범한 결과들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뻔한 어이 없는 거짓이라는 수많은 증거들이 수많은 실제 증인들에 의해 잘 서류화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서양의 저널리스트들과 사업가들, 외교관들, 자선단체들, 교육자들 그리고 다른 국제 감시 기구들이 이를 뒤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선생이면서 저널리스트인 일본인 타마키 마슈오카는 난징 대학살에 대해 증언한 250명이상의 퇴역 일본군과의 인터뷰를 가지고 있다. 이 인터뷰의 상당수는 비디오로 남아 있다.

잘못된 역사의 되풀이를 막고,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정진시키기 위해, 우리 서명인들은 각 나라의 올림픽 위원회 뿐만 아니라 2013년 9월 7일에 있을 국제 올림픽 기구 회의에 2020년 여름 올림픽의 최종 후보지인 이스탄불과 마드리드, 도쿄중 개최지로 도쿄를 선택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그들이 행한 수많은 잔혹행위에 대해 인정 하지도 사과 하지도 않는다면, 2020년 여름 올림픽의 개최지로 도쿄를 선택하지 말아 달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탄원합니다.